

2017년 8월 26일 시행 국가직 7급 가책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박문각 공무원 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선우쌤 총평 : 2017년 국가직 7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난도 상(上)의 문제는 장길산, 양명학자(정제두), 조선 후기 역사서 문제였고, 16~17세기의 그림문제도 꼼꼼하게 기본서를 보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였다.

시대사 출제 비율은 전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였고, 단원별로는 선사시대 1문제, 정치사 12문제, 사회사 1문제, 경제사 1문제, 문화사 5문제였다.

이번 국가직 7급 시험에서의 합격권 점수는 직렬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 행정직의 경우 80점~85점이면 합격권으로 예상된다.

■ 2017년 한국사 문제 시대별 분석

역사인식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	부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고대사회	대가야 발해 진성여왕 때 상황			무령왕릉
중세사회	이자겸			
근세사회			16세기 경제	16~17세기 그림
근대사회 태동		장길산		양명학 역사서
근대사회 전개	조 미 수호 통상 조약 1차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민족독립운동기	연해주의 독립운동 임시정부 사건 순서 사건 순서 나열			
현대사회	6 25 전쟁			
통합	고려와 조선의 과거 제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 유산

문 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다.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을 살펴보면, 가야산신 정전모주가 친신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이 나라 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에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①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 ②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 ③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을 하였다고 전한다.
- ④ 전성기에는 지금의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 답 ③

지문의 밑줄 친 ‘이 나라’는 고령 지방의 대가야이다.

<정답 찾기> ③ 금관가야의 수로왕(김수로)에 대한 설명이다. 수로왕은 즉위 후 관직을 정비하고 도읍을 정하는 등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친신의 명을 받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아유타국(阿毘陀國)의 왕녀 허황옥을 왕비로 맞이하였다고 전해진다.

<선지 분석> ① 대가야는 5세기 후반에 농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과 제철(製鐵)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② 고령 지산동 유적은 대가야 시대의 고분군 지역이다.

④ 합천 옥전·번계제고분군, 산청 중촌리 고분군, 함양 산백리·백천리 고분군,

남원 월산리 고분군, 장수 삼고리 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5세기 후반 이후의 유물들이 고령 지산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통해 대가야의 세력이 전라도까지 확산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 2.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려시대에는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 ㄴ. 고려시대 국가감시는 국가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 ㄷ. 조선시대에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은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 ㄹ.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게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까지 진출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 답 ①

<정답 찾기> ㄱ. 제술과는 한문학으로, 명경과는 유교 경전으로 시험을 보았는데 제술과 출신이 더 우대되었다.

ㄷ. 조선 시대 잡과 합격자는 해당 관청에서 벼슬하여 최고 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2품 이상이 되려면 다시 문과를 보아야 했다.

<선지 분석> ㄴ. 국가감시는 일명 사마시 또는 진사시로 향시 합격자, 국가감생, 사학 12도생, 현직 관리들이 응시할 수 있었다.

ㄹ. 고려 음서 대상은 5품 이상 특권층으로 고위직 진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음서(문음) 대상은 2품 이상으로 고위직으로 승진은 불가능하였다.

문 3.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 왔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항전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군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권대관신헌 등을 통해 미국과 ㉠을(를) 체결하였다.

-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 ②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 답 ④

㉠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이다.

<정답 찾기> ④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력을 받을 경우 서로 도와준다는 거중 조정 조항(제1조)이 들어 있었다.

<선지 분석> ① 영국과 맺은 조·영 수호 조약은 1883년에 맺어졌으므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체결 이후에 해당한다.

② 양곡에 대한 무관세·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을 허용한 것은 일본과 맺은 조·일 무역 규칙(1차 통상장정, 1876.8.)에 대한 설명이다.

③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인정받고자 했던 청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

문4.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곳에서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어 자치 기구와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상설 등은 성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의회가 전로한족회중앙총회로부터 개편 조직되었다.

2017년 8월 26일 시행 국가직 7급 가책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박문각 공무원 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 ㄱ.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 ㄴ.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가 설치되었다.
- ㄷ.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벌였다.
- ㄹ.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도로 동계사가 조직되었다.

2017년 8월 26일 시행 국가직 7급 가책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박문각 공무원 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 답 ②

밑줄 친 ‘이 내각’은 1차 갑오개혁(1894)을 추진한 제1차 김홍집 내각이다.
<정답 찾기> ② 1차 갑오개혁 당시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탁지아문이 관
장하도록 하였으며 왕실과 정부의 재정을 분리하여 국가 재정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선지 분석> ① 갑신정변(1884) 때의 14개조 개혁 요강, ③ 대한제국의 개혁
정책, ④ 독립 협회의 헌의 6조(1898)에 해당한다.

문 10. 사림의 문화를 반영한 16~17세기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정지의 「풍죽도」
- ② 심사정의 「초충도」
- ③ 어몽룡의 「월배도」
- ④ 황집중의 「목포도도」

☞ 답 ②

<정답 찾기> ② 심사정은 김홍도와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선지 분석> ① ③ ④ 16세기에 이정, 황집중, 어몽룡은 각각 대, 포도, 매화
를 잘 그려 3절로 일컬어졌다.

문 11. 다음 기행문의 ㉠에서 출토한 유물로 적절한 것은?

며칠 전 나는 공주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
은 송산리 고분군이었다. 그곳에는 ㉠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는(은) 연도(義道)와 현실(玄室)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 금송(金松)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棺)을 비롯하여 많은 부장품을 출토하였다. 중국 남조 양나라나
왜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무덤이다.

- ①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옷차림의 토우
- ② 무덤 안에 놓여 있는 왕과 왕비의 지석
- ③ 무덤 안의 네 벽면을 장식한 사신도 벽화
- ④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지 신상

☞ 답 ②

지문의 ㉠은 무령왕릉이다.

<정답 찾기> ②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무령왕과 그 왕비의
능에서 금제 관식·지석(誌石)·석수(石獸)·양나라 동전, 일본산 금송(金松)
목관 등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선지 분석> ① 신라 초기의 돌무지 덧널무덤, ③ 고구려의 강서고분, ④ 통
일신라의 굴식 돌방무덤에 대한 설명이다.

문 12.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하였다.
ㄴ.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였다.
ㄷ.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ㄹ. 조소앙의 삼군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 ① ㄱ → ㄹ → ㄷ → ㄴ
- ② ㄴ → ㄱ → ㄹ → ㄷ
- ③ ㄷ → ㄴ → ㄱ → ㄹ
- ④ ㄹ → ㄷ → ㄴ → ㄱ

☞ 답 ①

<정답 찾기> ① ㄱ. 1940년 → ㄹ. 1941년 → ㄷ. 1942년 → ㄴ. 1944년

문 1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
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연히 뇌
물을 받아 집에는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

- ① 그가 일으킨 난을 경계(庚癸)의 난이라고도 한다.
- ② 아들을 출가시켜 현화사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 ③ 금의 군신 관계 요구에 반대하며 금 정벌론을 주장하였다.
- ④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지덕쇠왕설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
하였다.

☞ 답 ②

지문의 밑줄 친 ‘그’는 이자겸이다.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 때 왕실과 혼인 관
계를 맺어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한 인물로, 인종 때에
는 거듭 외척이 되면서 그 세력이 왕권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에 자신의 집
에 의친궁 승덕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르기
까지 하였다.

<정답 찾기> ② 이자겸은 자신의 아들 승려 의장을 국사 및 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되는 수좌(首座)에 임명하여 불교계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선지 분석> ① 경계의 난은 정중부의 난(1170, 일명 경인의 난)과 김보당의
난(1173, 일명 계사의 난)을 지칭하는 말이다.

③ ④ 묘청에 대한 설명이다.

문 14. 다음 글에 나타난 ‘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 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 ① 양주 백정 출신인 임꺽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 ②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 ③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 ④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 답 ②

제시된 사료는 조선 후기 숙종 대에 활동한 장길산 일당에 대한 내용이다.
1696년 서얼 출신 이영창과 승려 운부가 장길산과 함께 봉기하여 거사를 도
모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왕은 상금을 걸어 장길산을 체포
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정답 찾기> ② 장길산 일당은 숙종 때 황해도 지방의 구월산을 중심으로 활
동하였으며, 평안남도 양덕 일대로 이동하여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문 1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성록
ㄴ. 난중일기
ㄷ. 비변사등록
ㄹ. 승정원일기
ㅁ. 한국의 유교책판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2017년 8월 26일 시행 국가직 7급 가책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박문각 공무원 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 답 ③

<선지 분석> 『비변사등록』은 세계 기록 유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러스 정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기록 유산 (13개)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하권, 2001), 승정원일기(2001),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2007), 조선왕조지체(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 운동 기록물(20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983년 방영 기록물(2015)
----------------	--

문 16.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의 학문은 안에서만 구할 뿐이고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중략)… 그런데 오늘날 주자를 말하는 자들로 말하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리는 것이요,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곧 주자를 부회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 하고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 자기들의 사욕을 달성하려 할 뿐이다.

- ① 양지와 양능의 본체성을 근거로 지행합일을 긍정하였다.
② 교조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어 죽음을 당하였다.
③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유교문명 이외에도 유럽·회교·불교 문명권을 소개하여 시야를 넓혀 주었다.

☞ 답 ①

제시된 사료는 당시 주자학의 권위주의적 학풍에 대하여 학문적 진실성에서 비판하고 있는 양명학자 정제두의 글이다.

<정답 찾기> ① 양명학에서는 앎과 행함은 분리되거나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앎은 행함을 통해서 성립한다는 이론인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고 있다.

<선지 분석> ② 윤희, ③ 송시열, ④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대한 설명이다.

문 17.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ㄴ. 서일을 총계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ㄷ.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
ㄹ.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독립군이 조직되었다.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ㄷ → ㄱ → ㄴ

☞ 답 ①

<정답 찾기> ① ㄱ. 훈춘사건(1920) → ㄴ. 대한 독립군단의 자유시 이동(1921) → ㄷ. 미쓰야 협정(1925) → ㄹ. 한국 독립군 조직(1930)

문 18. 다음 상황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의 삼례 집결을 도모하였고, 기병을 촉구하는 통문을 돌렸다. 통문에는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한 자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기>

- ㄱ.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다.
ㄴ.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
ㄷ. 북접군과 남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집결하였다.
ㄹ.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 부대를 맞아 격돌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 답 ④

제시된 사료는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 중 2차 농민봉기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1894. 6.)하고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등 내정 간섭을 강화하자 이에 대항하여 농민군은 척왜(斥倭)를 외치면서 삼례에서 재봉기 하였다(1894. 9.)

<정답 찾기> ㄷ. 남·북접군의 논산 집결(1894. 10.), ㄹ. 우금치 전투(1894. 11.)

<선지 분석> ㄱ. 황토현 전투(1894. 4. 7.), ㄴ. 전주 화약(1894. 5.)

<플러스 정리> 갑오년(1894)·을미년(1895) 주요 사건 일지

1894. 1. 10.	고부 민란
3.	동학군 1차 봉기 ⇨ 고부 ⇨ 백산(격문, 4대 강령 발표) ⇨ 태인 ⇨ 황토현 ⇨ 장성 황룡촌 ⇨ 전주 점령(4. 27.)
5. 5.	청군 상륙
5. 8.	전주 화약(집강소 설치)
5. 9.	일본군 상륙 [㉠] 일본군 출발: 5월 6일
6. 11.	조선 정부 교정청 설치
6. 21.(양력 7. 23.)	일본군 경복궁 침입
6. 23.(양력 7. 25.)	청·일 전쟁 발발
6. 25.(양력 7. 27.)	1차 갑오개혁(군국기무처 설치)
9. 18.	동학 농민 재봉기
10.	남·북접군 논산 집결
11.	공주 우금치 전투
12.	2차 갑오개혁(군국기무처 폐지)
1895. 3. 23.(양력 4. 17.)	시모노세키 조약
3. 29.	삼국 간섭
8. 20.	을미사변, 을미개혁

문 19.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나는 정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에서는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를 정통으로 하였다.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에서는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마한-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에서는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다.

☞ 답 ③

<정답 찾기>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에서는 단군에서 정통이 시작되어 기자로 이어졌다고 이해하는 단기정통론을 제시하였다.

<선지 분석>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에서는 삼국 이전을 편년에서 삭제함으로써 기자조선과 마한을 정통국가로 취급하지 않았다. 또한 삼국시대를 무통(無統)의 시대로 간주하였고, 통일 신라와 고려 통일 이후만을 정통 시대라 인정하였다.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위만을 정통 왕위로 보지 않고, 삼한(마한)을

2017년 8월 26일 시행 국가직 7급 가책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박문각 공무원 학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그 정통으로 보는 삼한 정통론을 제시하였으며, 단군-기자-삼한-신라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에서는 고대사 부분의 시대 구분을 조선-삼국-신라의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조선은 기자와 마한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문 20.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950. 6.	1950. 9.	1951. 1.	1951. 6.	1953. 7.
	(가)			
6. 25 전쟁 발발	서울 수복	1. 4 후퇴	휴전회담 시작	정전협정 체결

- ① 대규모 해상 작전인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다.
②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단행하였다.
③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④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 답 ④

<정답 찾기> ① 흥남철수(1950. 12. 24.)

<선지 분석> ② 반공포로 석방(1953. 6.), ③ 맥아더 해임(1951. 4.), ④ 애치슨 선언(1951. 1.)

<플러스 정리> 한국 전쟁 주요 일지

연 도	주요 사항
1949. 6. 30.	주한 미군 철수
1950. 1. 10.	애치슨 미 국무 장관, 애치슨 라인 발표
6. 25.	한국 전쟁 발발
6. 28.	북한군 서울 점령, 한강 인도교 폭파
9. 15.	유엔군 인천 상륙 작전 감행
9. 28.	서울 수복
10. 19.	국군, 38도선 돌파, 평양 탈환
10. 25.	중국 인민 지원군, 한국 전쟁에 개입
1951. 1. 4.	서울 후퇴
2. 11.	서울 다시 함락됨.
6. 30.	거창 양민 학살 사건
7. 10.	유엔군 총사령관, 북한 측에 정전 회담 제의
1952. 5. 7.	휴전 회담 본회의 시작(개성)
1953. 6. 18.	정부, 거제도 반공 포로 2만 5천 명 석방
7. 27.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 조인